

건축학적 내부공간의 개념과 그 확장 가능성에 대한 연구

- "HAUS IM HAUS"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cept of architectural interior space and of its extensi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Haus im Haus"-

최경실*/Choi, Gyoung-Sil

Abstract

When one speaks of space in architecture, one immediately thinks of an entity that is an enclosed space. For most people, space is therefore equated with interior space. And in most discussions of architectural space the character of the outside and that of the inside have been strictly differentiated. But architectural space must be construed as a total, intergral space. In this way, architectural space can articulate naturality. For example, by reasserting the eloquence of architecture and by graphically characterizing the different parts of the building, Ungers has moved far away from the traditional ideas of a modern movement that preached the homogeneity of all parts, so promoting uniformity and an expressionless monotony.

From this perspective co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hich is to present:

1. the character and meaning of the boundary that differentiates the outside from the inside of the architecture.
2. the types of the organization of the interior-space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ose types.
3. the new concept of the interior-spa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cept "Haus im Haus" that overcomes the polarity of the outside and the inside of architecture.

This result comes from the idea that harmony is achieved not by resolving this polarity into one or the other extreme, but by allowing coexistence of both aspects.

1. 서론

건축공간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포함하면서 건물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것, 나아가 건축에 대한 미적 관결을 결정하는 것은 내부공간이다.¹⁾ 건축의 내부공간은 인간생활과 관련된 환경의 의미로 더욱더 중요성을 지니는데, 환경디자인 이론에 관련된 소통이론은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을 하나의 환경으로 보는 것과 세상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켜준다.²⁾ 실내공간을 계획한다는 것은 공간과, 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인간을 하나의 맥락안에 집어 넣는 일이다. 따라서 인간과 공간의 관계는 조정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대상의 일부로 인식되어야 하며, 나아가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기체적 통합의 의미는 단지 인간과 공간의 연관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체험하는 공간의 형태에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이 체험하는 공간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유동적인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관계를 이처럼 상호작용에 역동적인 것으로 본다면, 두 개념은 양극적으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닌, 서로에게 종속되어 있으면서 밀접한 연관을 맺는 개념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건축적 공간현상은 외부-내부의 근본적인 양극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

시 말해 그 근본에 있어 인간과 공간, 또는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건축이 결과적으로는 '상호분리감'을 유발하는 "경계"의 조합으로 구축되어져 왔다는 것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분리된 형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건축적 공간은 통합, 총체적 공간으로 파악되고 구성됨으로써 자연성을 구현할 수 있다.³⁾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가 고찰하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적 공간에서 양극적 특성을 규정하는 '경계'와 관련한 공간개념의 특징과 의미를 고찰한다.

둘째, 건축적 내부공간 조형방식의 유형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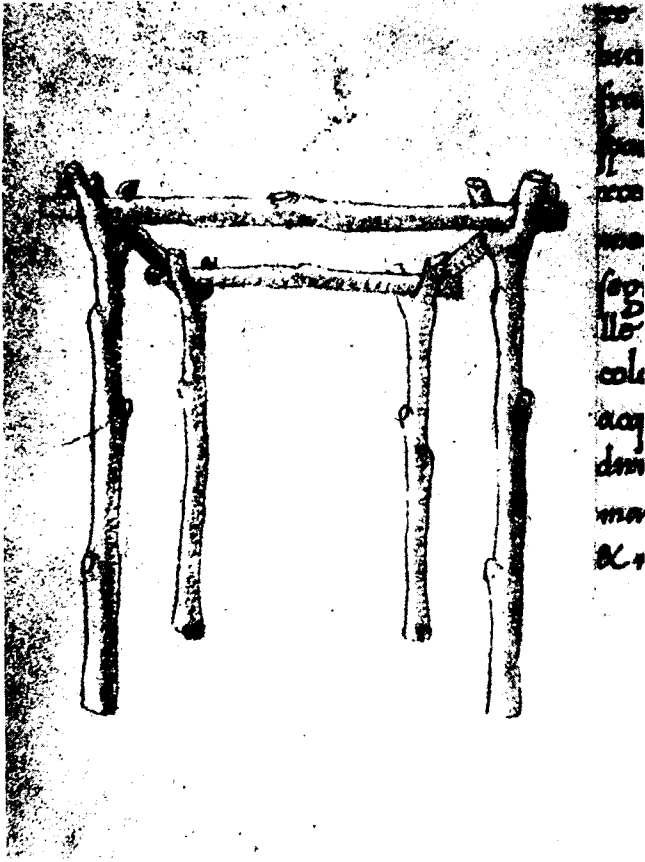
셋째, 필라레테(Filarete)의 주거원형(Urhütte)⁴⁾에 나타난 통합적 공간, 즉 외부공간이면서 곧 내부공간이기도 한 공간을 "집속의 집(Haus im Haus)"의 개념에 적용한 예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실내공간 조형개념의 확장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3)Heinrich Klotz, City Wall and Adam's House, in:V. M. Lampugnani (Ed.)1990, Museum Architecture in Frankfurt 1980-1990, Munich, p. 151 참고.

4)필라레테(1400-1469):플로렌스인 필라레테는 안토니오 아베를리노라고 불렀던 건축가인 동시에 예술이론가로서, 주된 작품은 로마의 베드로 성당의 동으로 된 문들이 있다. 비트루브에 있어서 건축을 하거나 "함목적성"이 자연으로부터의 보호에 있었다면 필라레테에 있어서 건축은 살아남기 위한 행동이었다. 기독교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아담을 최초의 건축가로 보았다. 주거원형(Urhütte); 필라레테는 아담을 최초의 건축가로 보고 아담이 사용한 이상적 치수가 그 시초에서 부터 올바른 분할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이점에 있어서 필라레테는 순수한 인체측정학(Anthropometrie)의 창안자로 꼽힌다.

1)Bruno Zevi, 강혁 역 1989, 공간으로서의 건축, 서울:집문사, p. 48.
2)Jon lang(1987), Creating Architectural Theory, New York:Van Nostrand Reinhold Co., p. 90.

* 정회원, 이화여대 장식미술학과 전임강사



〈사진1〉 필라레테의 주거원형(Urhütte)

2. 건축학적 공간개념과 '경계'

2-1. 건축학적 외부공간의 개념

건축학적 외부공간이란 자연상태에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공간을 형성한다는 것은 주변세계와 인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들뜬에 서있는 나무 한그루를 한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자. 그 사람은 개인이 경험한 공간감을 적용시켜 보여지는 상태를 한정하고 구분하게 된다. 외부공간은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설정되는 의미있는 공간을 말한다.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공간감을 적용시켜 바라본 한그루의 나무와 그주변의 자연공간은 내부공간인 동시에 외부공간의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거기에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은 대립의 관계에 놓일 수 있으며, 동시에 상호 융화적 관계에 놓일 수 있다. 그 나무에 사람이 다가가서 기대어 서 있게 되면 그 나무와 인간의 관계로 인하여 더욱 구체적인 공간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인간의 의도와 기능의 영향력으로 인한 적극적 공간과 외부로 무한히 퍼져나가는 소극적 공간의 대비가 발생하게 된다. 인간의 존재와 더불어 발생하는 내부공간적 특성을 띤 적극적 공간과 구별되는 소극적공간으로서 자연적인, 선택적인 외부공간은 보다 본질적 성격을 지닌다. 인간의 의도나 기능의 적용으로 생겨난 이 사이의 "경계"는 적극적 공간과 소극적 공간을 상호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건축적 외부공간이란 무한한 자연공간에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적극적공간으로 구별된 공간인 것이다.

필라레테가 서술하고 묘사하는 주거원형은 나무줄기를 기둥이라고 내개의 나무 줄기와 횡목, 그리고 함각머리형 장식으로 결합된 것을 "주거의 원형"이라고 규정한다. Ulrich Nether: Architektonische Uhrtypen Beispiele aus der Geschichte der Architekturtheorie, in: Jürgen Pahl(1986), Typus. Modell. Leitbild, Düsseldorf: Fachhochschule, p.24.

2-2. 건축학적 내부공간의 개념

"건축학적 내부공간"이란 사람이 그 내부를 물질적 재료를 써서 만들고 또 사람이 그 내부에 들어 갈 수 있는 빈공간을 의미한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건축형태와 건축기술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내부공간은 단순히 빈공간이라 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때 우리는 그 공간이 한편으로 우리의 육체를 뒤덮는 전체라는 것과,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결코 공간전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한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고 방향을 틀고 함으로써 우리가 그 공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완해 나간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공간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면서 동시에 관념적으로 다가온다. 이런 관점에서볼때 건축에서의 내부공간은 독특한 방식의 공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내부공간이란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인 상태로 서로 위치한 행위가능한 영역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이다. 건축은 공간적으로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 정열되어 있다. 건축물을 이루는 구조들의 모든 병렬적 질서는 "공간적"이라고하며, 모든 전후적 질서는 "시간적"이라고 한다.

경험적으로 볼때 이 구조들은 서로가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구조는 길이나 넓이 높이와 같은 공간적 질서나 각각의 비율이 아니다. 물론 이것은 비트루프(Vitruv) 이래로 많은 건축가와 건축이론가들에게 지지를 받아왔다. 사람의 눈이 인식하는 것은 오히려 건축환경을 인간의 행위의 무대로 정열시키는 공간적, 시간적 구조이다. 건축은 일차적으로 행동의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공간과 시간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환경으로서의 공간은 관계의 그물망처럼 인간의 주위에 존재한다. 공간은 우리의 마음대로 그 안으로 들어가고 파악하며, 또 그것을 우리의 모든 감각과 관심을 가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존재한다.

공간은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든 우리의 삶을 위해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움직이는 연체동물(Handlungsmolluske)"이다. 공간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자신의 표현이자 우리에게 열려진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형태이다.⁵⁾

2-3. 내부공간조형

독일의 건축사가이며 건축가인 위르겐 외디케(Jürgen Joedicke)는 건축에 있어서 공간조형 방식을 첫째로 "공간용기"로서 닫혀진 형태가 되도록 둘러싸인 공간, 둘째로 "공간의 場", 즉 물체사이에 펼쳐진 場으로서의 공간으로 분류한다.⁶⁾ 또한 마이젠하이머(W. Meisenheimer)⁷⁾는 건축학적 내부공간은 오늘날까지 크게 두가지의 조형원리, 즉 "사잇공간의 원리"와 "동굴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구분하고 있다. 이 두 건축가들이 의미하는 공간조형원리는 공간용기-동굴의 원리, 공간의 장-사잇공간의 원리가 서로 내용상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공간조형원리의 특징적 질서와 의미를 살펴보면 건축학적 내부공간을 중심으로 건축에 있어서 실질적인 목적과 관념적 의미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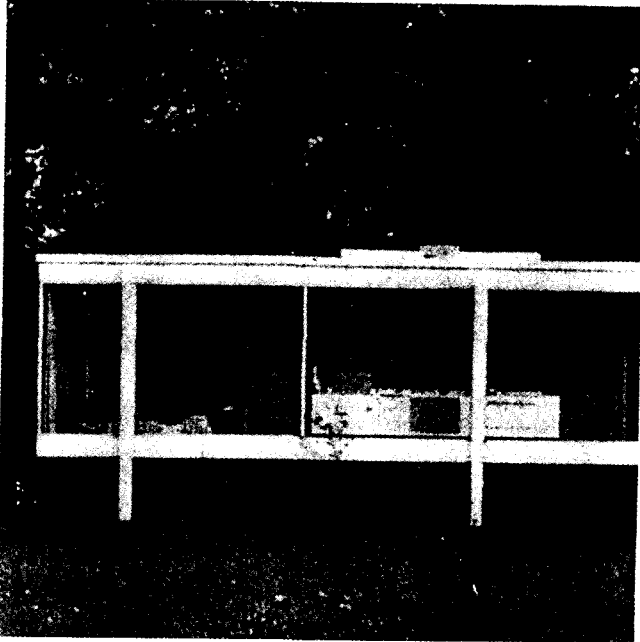
- 사잇공간의 원리: 내부공간은 건축물 개개의 구조적 부분들의 사이에 있는 사잇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벽과 천정 등 내부공간을 감

5) W. Meisenheimer(1990), Raumstrukturen, Düsseldorf: Fachhochschule, p. 1.20.

6) Jürgen Joedicke(1985), Raum und Form in der Architektur, Stuttgart: Karl Kröner Verlag, p.12.

7) 마이젠하이머(Wolfgang Meisenheimer, 1933-): 건축가이며 독일 뒤셀도르프 기술대학 건축설계분야 교수, 베를린 DAIDALOS의 공동발행인, 주요 논문 및 저서에는 "건축의 공간, 구조, 조형, 개념(Der Raum der Architektur, Strukturen, Gestalten, Begriffe.)," "형상(Figuren)," "공간구조(Raumstrukturen)" 등이 있다.

싸고 있는 구조적 부분들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공간적 긴장이 발생한다. 사이트공간의 특징은 개방성과 함께 외부로부터 내부로 유동적으로 변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사이트공간의 원리로 조정되는 실내공간은 개개의 구조적 요소들의 명확한 구획으로 인해 밝고 정돈된 공간유형으로 파악되어 진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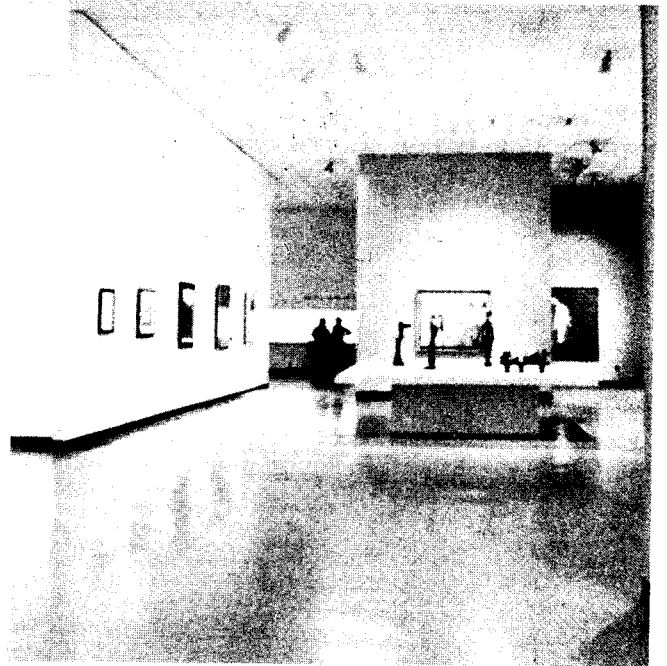


〈사진2〉 미스 반 데 로에(L. Mies van der Rohe); 하우스 워스(Haus Farnworth)



〈사진3〉 리트벨트(G. Rietvelt); 쉬뢰더 하우스(Haus Schröder), 유포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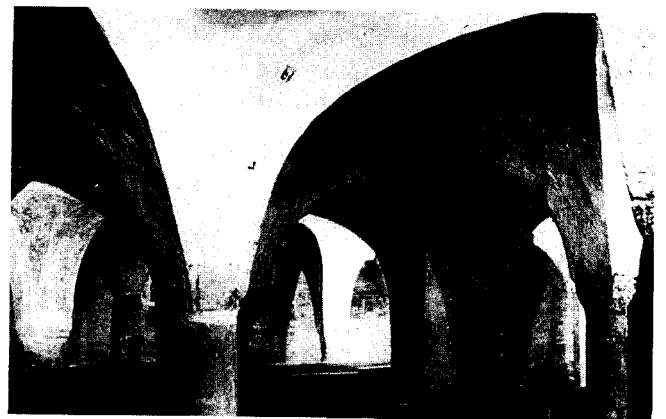
— 동굴의 원리: 벽과 천정등, 내부공간을 감싸고있는 구조적 부분들이 서로 겹쳐있고 서로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을때 동굴의 원리를 적용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동굴의 공간형태는 다소 밀폐되어 있는 듯하며, 동시에 안정과 보호되고 있는 느낌을 준다. 동굴의 원리가 적용된 공간은 강한 주체중심적 경향과 내향적 특성을 지닌다. 그 구조적 요



〈사진4〉 슈피이어(J. Speyer), 전시장, 시카고.

소들의 체계는 조망이 불가능 하게 혼재되어 있고 내재되어있는 형태로 나타난다.⁹⁾

내부공간조형에 있어 이러한 두가지의 경향은 수 천년 이래 건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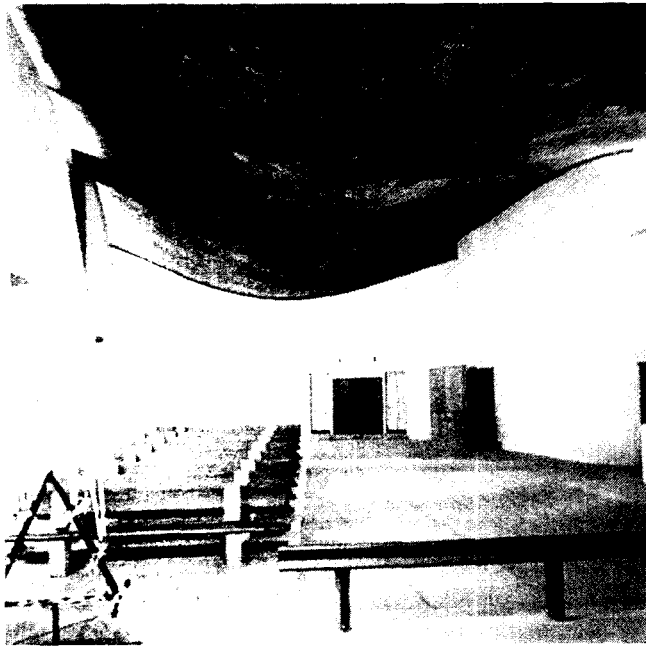
〈사진5〉 동굴의 원리를 적용한 건축적 내부공간의 예.

사용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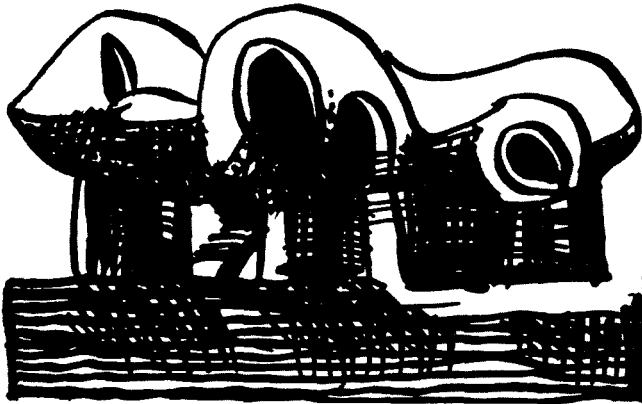
"사이트공간의 원리"는 명료성이 요구되어질때 사용되며, 건축물이 질서정연한 구체적 형태의 구성을 갖춘것으로 보이고자 할때,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공간유형을 나타내고자 할때 쓰인다. "동굴의 원리"는 친밀감과 폐쇄성이 요구될때 사용되며, 공간에 보호와 안정감의 성격을 부여하려할 때 사용된다. 그것은 외부세계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그래서 은밀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이 강해지면 오히려 상실감과 불안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위와같은 구조적 적용에 따른 사이트공간의 원리와 동굴의 원리는 구축되어지는 실제공간, 또 그러한 공간들을 관련지어 얻을 수 있는 공간의 접침을 통한 공간조형방식을 보여주고있다. 이두가지 조형방식에서 우리는 건축공간을 자연공간과 대비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관점, 즉 건축적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으로서의 자연공간을 구별하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있다. 사이트공간의 개방성은 외부세계를 향한 개방성을 의미하며 내부와 외부공간의 의미상 개념상의 일치 내지는 동일성을 의미하지는

8) Wolfgang Meisenheimer(1990), p. 3.20.

9) 앞글, P. 3.20.



〈사진6〉 르 코르뷔제(Le Corbusier), 롱상(Ronchamps)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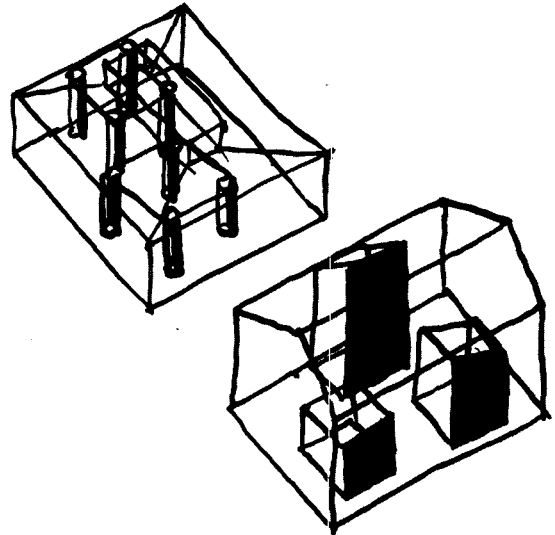
〈사진7〉 키슬러(F. J. Kiesler), "끝이 없는 집".

않는다. 우리는 공간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 공간은 그것을 규정하고 특징짓는 개별적 부분의 특이성과 상호간을 보완해주는 조화의 체계로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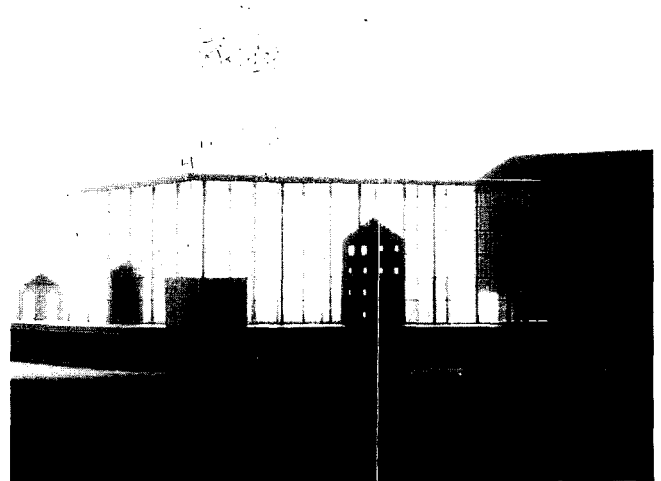
이 특이성은 그것이 공간 속에서 드러남으로써, 그리고 그것이 있는 장소, 그것의 질료를 통해 형식화 된다. 모든 건축물들은 일련의 다양한 공간관과 공간형태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그 건축물들은 다양한 공간적인 가치와 의미를 구체화한다.

이 공간현상은 외부-내부의 근본적인 양극성의 특징을 지니며, 재료에서나, 구조, 형태, 기능, 의미등에서 복잡한 층을 이루는 특징을 지닌다. 여기에 나타나는 질서(Ordnungen)에서는 위상기하학적 성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내부와 외부, 넓고 좁음, 크고 작음, 큰 덩어리와 내부공간 등, 이러한 위상기하학적 성격들은 공간을 규정하며, 그 공간에서 느낌과 의미들을 만들어 낸다. 동양적 공간개념을 가장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노자는, 내부의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지각할 수 있는 상대적 매스보다 더욱 본질적이라는 점을 역설한다.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경계벽에서 문이나 창에 의해 형성된 빈공간을 과도적공

간으로 인식한다. 즉 그 것은 외부와 내부의 결합인 동시에 분할이며 연속인 동시에 경계인 것이다. 동양의 건축구조에서는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깨뜨리고 외부세계를 내부세계로 유입시키는 구조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서양의 공간조형방식에서 추구하는 내부,외부를 구분하는 조형형태에 비해 외부를 향한 점진적 개방, 혹은 내부를 향한 외부공간 유입의 좀더 적극적이고 개방된형태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또 한가지의 공간개념 분리현상의 특성이 나타난다. 서양에서 개방적 내부공간 조형원리로 사용된 사잇공간의 원리에서나 동양의 공간 구조방식, 양쪽 모두에서 전자의 경우 개념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내부와 외부의 근본적인 양극성을 탈피하지 못하였고, 후자의 경우 개념적인 양극합일성을 구조적 형태로 다양화 시키지 못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건축적 공간에 대한 양극적 관점의 통합을 유도하는 'Haus im Haus' 공간조형개념을 분석해 봄으로써, 건축적 내부공간의 다양한 변형과 그 의미영역의 확장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사진8〉 도시로서의 집, "집 속의 집"(HÄUSER IM HAUS) 건축 스케치.



〈사진9〉 가족시장 광장을 위한 현상설계안: 공중목욕탕 박물관. 웅어스(Oswaid Mathias Ungers) 설계, Trier시, 1989. 발굴유적의 문화적 공공성을 반영한 공중목욕탕 박물관의 유리입방체구조에서 "Haus im Haus"의 조형적 구성이 선명하게 보여진다.

3. "Haus im Haus" 공간조형방식의 특성

3-1. 상징미학적 공간개념으로서의 "Haus im Haus"

환경으로 부터 얻은 정보는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적속성, 정서적반응을 일으키는 환경적 성질, 욕구를 자극시키는 동기적 메시지를 가진다. 한 개인은 얻어진 정보에 따라 가치와 미적 성질을 배분한다. 인간은 환경을 하나의 의미있는 관계들의 형태로 경험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과거의 경험이 새로운 것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이다.¹⁰⁾

공간의 형태나 공간간의 관계등은 그자체가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크리스티안 노베르크-슐츠(Christian Noberg-Schulz)(1971)는 건축공간을 실존적 공간의 구현 즉 인간의 만족을 위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시켜온 도식으로 본다. 이 도식은 심리적으로 구상한 것을 표현해주는 것이다.¹¹⁾

인간의 주변환경은 인간과 관련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상징적 의미는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유추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추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표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보다 복잡한 형태에 대한 감정이입에 의해 수반되며, 그 감정이입은 다시 단순한 형태로 환원된다.¹²⁾

유추는 보통 완전히 다른 두 사건 사이에 동질성 혹은 똑같은 원칙을 갖는 존재를 성립시킨다. 상징, 은유, 모델, 유추의 방법은 새로운 구상을 발전시키는 것과 새로운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¹³⁾

'Haus im Haus' 공간조형방식은 건축학적 내부공간의 의미를 상징적 의미부여를 통해 확장시킨 예로 간주할 수 있다. 인간이 외부환경에서 경험한 공간관계, 공간형태를 실내공간구성에 적용시킴으로써 공간형태의 상징적 역할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Haus im Haus"에서는 내부공간이 곧 외부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Haus im Haus'의 구조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공간의 연속성을 표현할 뿐 아니라, 추상적이고 미학적인 디자인에 기초한 건축의 테마화를 발전시키는 방식인 것이다. 새로운 건축적 형태는 대체의미의 변환을 통해 발생되며, 이 변환은 특히 유추, 또는 유사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¹⁴⁾ 상상속의 세계에서 은유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풍부해진 표현을 통해 건축은 새로워진다. 건축에 있어서 새로운 추상에 의해 개선된 점은 건축은 더이상 고정된 예술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의 물리적, 정신적 영역을 변화, 확장시키는 작업과 넓은 의미로서의 환경에 대한 인식결정을 계속 반복해 나간다.¹⁵⁾

형이상학(Metaphysics)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체와 총계를 구별한다. 서로간의 관계에서 부분들의 지위의 차이가 생기지않는 집합이 총계이며, 그것의 차이가 있는 것이 전체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체에 속한 부분은 그것이 한부분인 전체속에서 이외에는 그것자체의 성질을 유지할 수 없다고 부연한다. 또한 그는 한 부분의 제거가 전체를 훼손시키기 쉽고, 어떤 부분들의 대치는 그것의 통일성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한다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것을 하나의 총계와 하나의 통일된 전체 사이의 차이점으로 제시할 때, 그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총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전체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의 어떤 변화가 그것 전체의 부분들로서 남아 있는 부분들 모두의 본질과 관계에 있어서 변화를 발생케 하는 것이다. 이 사상은 예술작품에 적용될 때, 하나의 유기적 통일성이라는 현대의 개념에 매우 중요한 사상이 된다.¹⁶⁾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자연과 예술의 동화는 이론가들뿐만 아니라 활용론자들의 관심사도 된다. 장소의 자리에는 의사소통, 지속성의 자리에는 움직임 그리고 구별의 자리에는 동화가 들어 가게 된다. 건축의 원래 본질은 내부와 외부, 물체와 공간, 둘러싸여 있는 요소와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의 이중작용 속에 있다.¹⁷⁾ 이러한 이중작용 속에서, "Haus im Haus"는 공간의 다원기능성과 경계의 해체, 동화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공간조형방식이 되는 것이다.

3-2. 조형기호학과 "Haus im Haus"

우리는 '기호학'을 기호에 관한 이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호학이란 의미 일반에 관한 이론, 그레마스의 표현에 의하면, "의미의 파악과 생성의 모든 조건을 일관된 메타언어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이론이다. 기호는 발견된 단위, 즉 우리가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 역사적인 산물 혹은 사용에 지나지 않는다. 언어의 두 차원인 표현과 내용이 기호의 양면인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é)를 통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기호를 알아야 하겠지만, 이러한 현상적인 면의 분석을 통해서만 언어체계와 그 기능작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덴마크의 언어학자 엘름슬로우(Louis Hjelmslev)에 따르면, 자연언어의 경우 비기호적 자질(figure)은 표현면에서 음운(phonème)에 해당하고, 내용면에서는 의미소(sémème)에 해당한다. 비기호적 자질은 보다 심층에 있는 요소인 변별자질 - 표현면에서는 음소(phème), 내용면에서 의소(sème) - 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파악된다. 즉 비기호적 자질은 그것을 범주화한 표현자질들 혹은 최소 의미자질들의 결합이며, 비기호적 자질인 음운과 의미소, 또한 이들을 구성하는 음소와 의소는 내재적이고 이론적으로 구축된 단위인 것이다. 기호학이 연구하는 대상은 바로 이러한 단위들이 조직하는 '관계체계'이다. 표현면에서 조형기호학이 분석대상으로 삼는 단위들은 어떤 매체를 통해 실현되어서 실제로 우리눈앞에 나타난 실질이 아니라, 실질이라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단위들 사이에 맺어진 관계, 즉 형식이다. 내용면의 분석 역시 범주를 이루는 서로 대립되는 자질들로 이루어진 형식에 대한 분석이다. 표현면과 내용면은 상호 전체관계에 있으므로 분석의 다음 단계는 양면 사이의 분절양상을 규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분석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다. 표현면이 내용면과 결합됨으로써 이제 가시적 대상은 관념적인 대상으로 변형되는 것이다.¹⁸⁾ 건축행위는 일종의 기호학적 행위이다. 상징의 성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새로운 분야로서 기호학은 이미 많은 환경 디자이너들과 건축가들의 사고에 영향을 끼쳐왔다.¹⁹⁾

기호학은 모든 문화적 과정을 소통의 과정으로 연구한다. 소통과정에서 목적지가 인간일 경우 여기에서는 의미작용의 과정이 일어난다. 신호(Signal)가 단순한 자극을 넘어 수신인에게 해석적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는 조건에서 그러한 것이다. 이과정은 약호(Code)의 존재에 의해 가능해진다. 약호는 그것이 현존하는 실체들을 부재하는 단위들과 짝지운다는 점에서 의미작용(Signification)의 체계이다. 의미작용의 체계는 어떤 가능한 소통행위에서 독립된 추상적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소통의 행위는 그 필요조건으로서 의미작용을 전제로 한다. 본문에서는 조르주 벤의 "브라운 슈바이크

10)Jon Lang(1987), p.90.

11)앞글, p.206.

12)앞글, p. 210-213.

13)Fritz Neumeyer, 진 경돈 외 공역(1994), Oswald M. Ungers의 건축이념과 작품론1951-1990, 서울:미건사, p.230.

14)Sadok, J. M.: Figurative speech and linguistics, in: Ortony, A. (1979), Mataphor and thought, Cambridge, p. 48.

15)Heinrich Klotz, 양 동양 편역(1994),현대건축론, 서울:기문당, pp. 293-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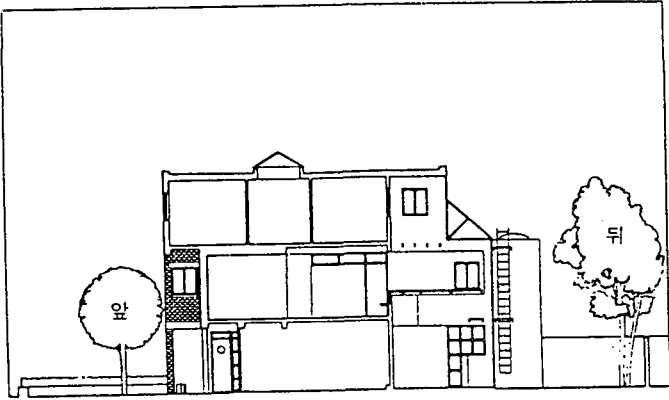
16)Harold Osborne, 서배식 역(1984), 미학과 예술론, 서울:대왕사, p.313.

17)Fritz Neumeyer(1994), p.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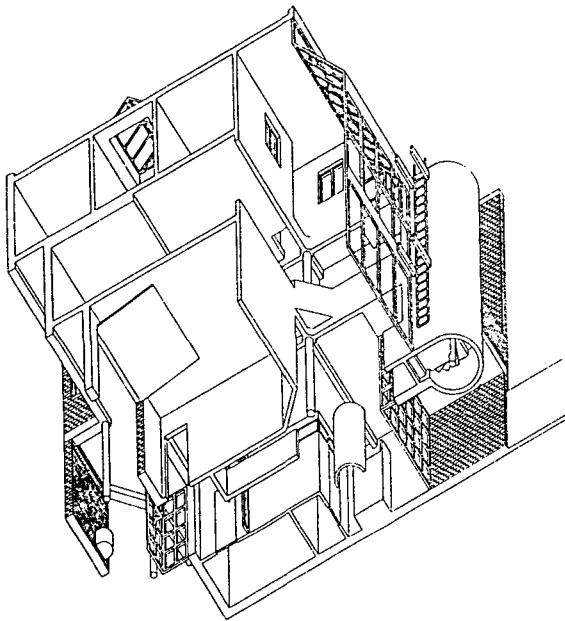
18)Floch J. M.,박 인철 역(1994), 조형기호학, 서울:한길사, pp.4-7.

19)Brodhent/ Bunt/ Jencks (1980), Jon Lang (1987), p.204 재인용.

의 집"을 사례로, "Haus im Haus"의 조형기호학적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진10> "브라운 슈바이크의 집"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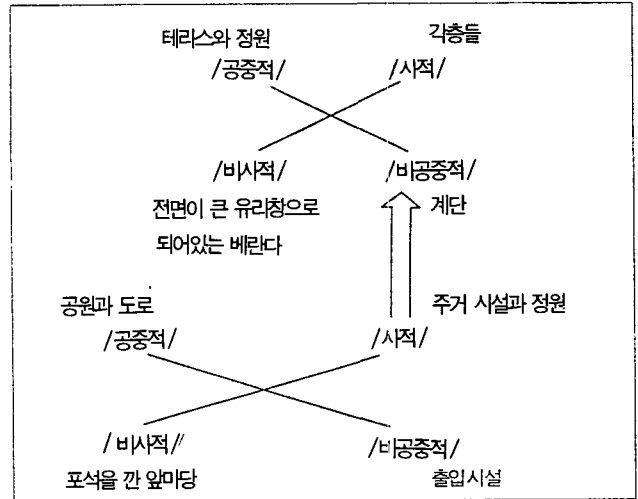
<사진11> 벨기에의 건축가 조르주 벤(Georges Baines)의 "브라운슈바이크의 집" 1976./공중적공간/대/사적공간/의 대립을 새로운 의미범주로 변형시켜, 복합공간으로서의 기능성을 부여한 예.

조르주 벤은, 이 건물을 "Haus im Haus"로 계획함으로써 /공중적공간/과 /사적공간/ 대립의 의미전환을 가능케 하였다. 이 건물의 배치관계에서 도로는 /공중적/이라는 사항을, 주거시설과 정원은 /사적/이라는 사항을 나타낸다. 보도와 연장선상에 놓인 앞마당을 보도의 연장으로 처리하면서 경계에는 사람의 접근이 용이한 낮은 벤치를 설치하여, /공중적공간/은 의미적으로 /비사적인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일반적으로 도시와 건물의 관계에 있어서 /사적경계/의 역할을 수행하는 출입시설인 현관은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사적공간과의 비이점관계를 형성하여, /비공중적 공간/의 의미로 전환시키고 있다.

위에서 나타난 공간관계는 이제 옥내면에서, 같은 /공중적/ 대 /사적/의 의미범주에 따라 재분절된다. 옥외면에서 나타난 공간관계에 의해 정의되었던 /사적/인 공간(주거시설)이 옥내면에서는 /탈사적화/ 된다. 탈사적화된 옥내에서의 각 공간들의 재편성은 또다시 분절된 /사적/에 해당하는 항을 만들어 낸다. 옥외면의 관점에서는 /사적/에 해당하는, 정원은 옥내면에서 볼 때는, 도로를 향해 난 전망과 정원이 비교되고 또한 두 전망을 통해 연이어 도시의 공원과 여러 도

로를 볼 수 있음으로써, /공중적/이라는 항을 나타내게 된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에서 계단은 /공중적/성격을 띤다고 한다면 이곳에서는 /비공중적/성격이 실현되고 있다. 이 계단은 /사적/공간의 본질적 부분을 시선에서 차단하며, 동시에 사적공간으로의 이동을 강하게 지시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사적/도 아니고 /공중적/도 아닌 /비공중적/항으로 설정되고 있다. 옥내 공간들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도표1) '브라운 슈바이크의 집' 공간관계, 장 마티 플로슈(Fl-och J. M.), 조형기호학, p.178.



지금까지 설명한 각 공간관계에서 /공간의 사회성/이 전체건물에서 분절된 위치에 따라 서로 의미 가치를 규정하는 공간관계의 유연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집속의 집(Haus im Haus)'의 /비공중적/ 공간과 /비사적/공간의 관계는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하고 있지만 형태와 밝기, 연결관계 등에서 똑같이 처리되는 과정을 지냄으로써, '의미작용'이 실현된 조형적 체계가 성립된다. 이와 같은 상호 대립적 이항적 패턴화는 대상을 원하는 형태로 구조화 하고, 변환시키는 체계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레마스의 구조의미론에 따르면 "의미작용의 기본구조" 배후에도, 대립에 대한 지각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차이를 지각하고, 그 지각의 덕택으로, 대상은 우리의 목적에 맞도록 형태지위지는 것이다.²⁰⁾

이 건축물에서 벤은 'Haus im Haus'공간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외연적인 입장의 새로운 분절에 의해 수행되는 기호체계들의 전이를 가능케하는²¹⁾, 복합적 관점과 계열체적 사고를 결합시킨 조형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공간들을 계열화 시키는 '건물의 구조화'를 실현하여, 건축적 행위의 조형기호학적 특징을 가시화 하였다.²²⁾

3-3. 유형학적 공간개념으로서의 "Haus im Haus"

"유형적"이라는 것은 원형상적이고 모범적이며 일군의 사물과 표상, 행위를 대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은 일반적 정의에 따르면 일련의 유사한 형태들의 속성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는 형태이다. 유형

20) Terence Hawkes, 오 원교 역(1982), 구조주의와 기호학, 서울:신아사, p.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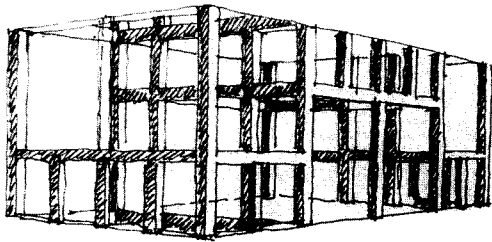
21) Bernard Toussaint, 윤 학로 역(1987),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청하, p.149.

22) Floch J. M.(1994), pp. 165-183.

은 모델적 성격을 가진 대상이며, 하나의 이념이라는 측면을 가진 대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유형은 대상들의 측면에서 본 보편적 표상으로서의 이념 자체를 뜻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유형적"은 본질적(wesentlich)이고 함축적(prägnant)인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플라톤에 있어서 사물의 원형상은 이상적 사과의 통합을 의미하며, 그것은 스스로 존재하며, 사물의 모든 개별단계를 종류별로 포함하고, 각 사물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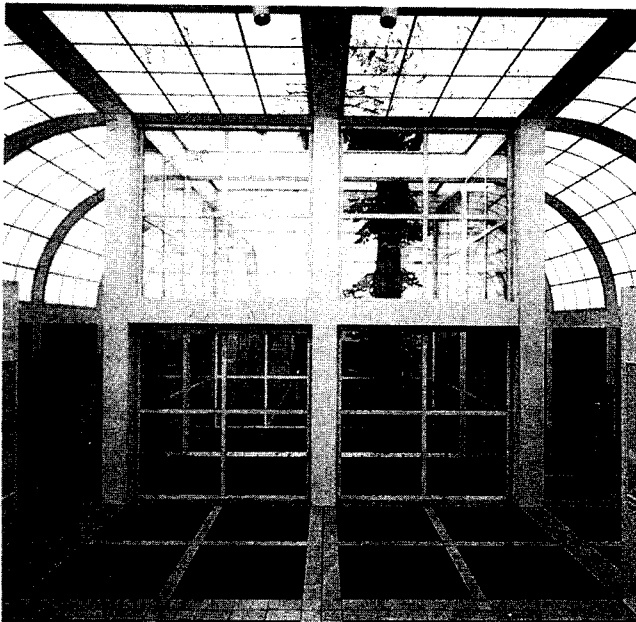
발달심리이론의 관점은 건축공간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에 유형학적 공간개념의 역할을 잘 설명하여 준다. 인간이 공간을 지각하고, 형태로 표현하는 능력은 단계별로 발달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는 제일먼저 유형학적 모델로 서술될 수 있는 공간을 체험한다. 즉 그들은 어머니를 만지며 어머니의 입을 찾고 또 본다. 대략 4세가 되면 아이들은 깊이, 앞, 뒤와 같은 투시적 공간특징을 알게된다. 10세가 되면 직각이나 평행등을 평가할 능력을 가진다. 어른이 되어서도 미리 습득된 능력으로 공간을 유형학적(Topologisch)구조와 투시적(Projektiv)구조, 유클리드적(Euklidisch)구조를 사용해 공간을 평가한다²⁴⁾

웅어스는 건축의 형상화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몇가지 기본형태를 가지고 가능한 다양한 변형형태를 얻기 위해 곁힘, 분리, 뒤집기, 배가, 반영, 나열 반복, 확장등 여러 방식으로



Design sketch for 'house within the house'

<사진12> "Haus im Haus" 디자인 스케치: 프랑크푸르트 건축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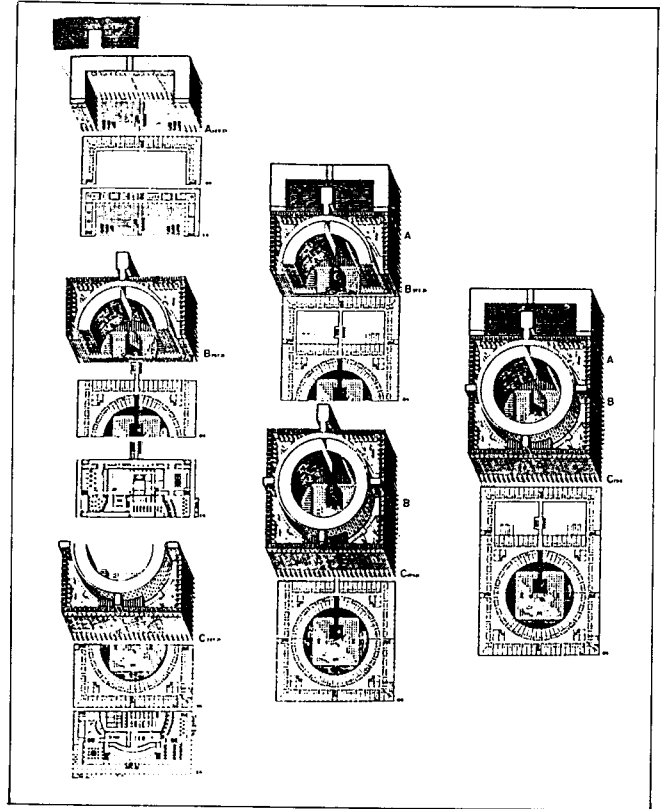


<사진13> 건축박물관 내부 전시관.

23)Wolfgang Meisenheimer, in:Jürgen Pahl (1986), Typus-Modell -Leitbild, FH. Düsseldorf, p.5.

24)Wolfgang Meisenheimer(1990), p.1.20.

공간형태의 여러유형을 도출한다. 다음 단계에서 이러한 유형들은 각기 다른 공간성격에 적합하도록 개별 형태, 조합 형태, 복합적 형태로



<사진14> 웅어스의 "베를린 호텔" 설계안.

기하학적 요소들의 구성으로 "Haus im Haus"의 주제를 유형학적으로 시각화시킨 전형적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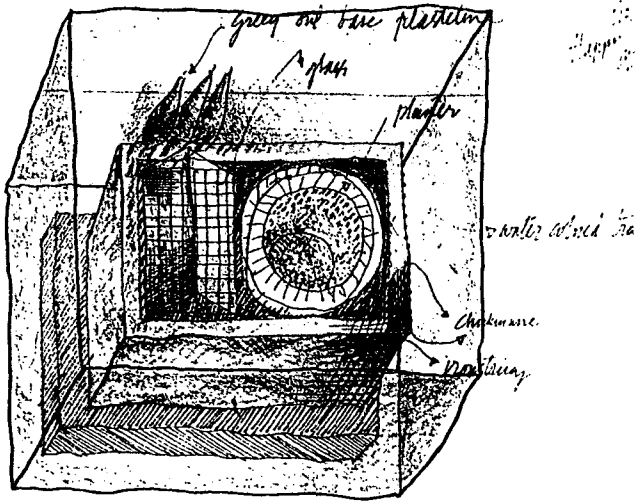
서 서로 유사한 또 다른 형태가 발전되고,이러한 형태 변형과정을 통해 통합적 성격을 가진 공간유형 즉 기본모델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도출과정은 설계의 복합성을 설명하고 있다. 즉 설계는 대우주의 복합성을 반영하고있는 하나의 소우주이며, 마치 다원적 도시의 모델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든 영역들이 서로 상호보충적인 보완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²⁵⁾

웅어스는 프랑크푸르트 건축박물관 설계에서 유형과 비유의 동시적 용을 통해 건축의 테마화를 이룬다. 즉 다양한 유형학적 상황을 지니는 "도시"라는 주제를 건축에 대입시키는 방식으로 "도시 속의 도시", "집 속의 집(Haus im Haus)"의 조형개념을 도입한다.²⁶⁾이 곳에서 우리는 집 같은 도시, 도시 같은 집,으로, 또다른 상이한 형태로 변화하는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내부공간이 외부공간으로 변하고 "집속의 집"이되며, 집은 그자체가 미니도시가되어 다시 도시속의 도시를 구현한 것이다. "집속의 집"이라는 조형개념은 소위 대립의 일치에 대한 한 예이다. 이러한 형태의 발전단계는 유형학적 의존성과 연관성 안에서의 사고를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의 유형학적 사고란 패턴이나 타입의 변형 발전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념과 통합적 관점에도 의미를 둔다. 유형학적 사고는 전체와 관계하며, 사물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 극단적인 것 균형적인 것등과 동시에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모델, 단계를 발견해 내는 것이다.²⁷⁾

25)Fritz Neumeyer(1994), pp. 13-18.

26)R. Gruber, Sichtbeschränkungen. Zur Überwindung der baukulturellen Orientierungskrise, in:G. Fischer u.a. (1987), Abschied von der Postmoderne. Beiträge zur Überwindung der Orientierungskrise, Wiesbaden, pp. 53-7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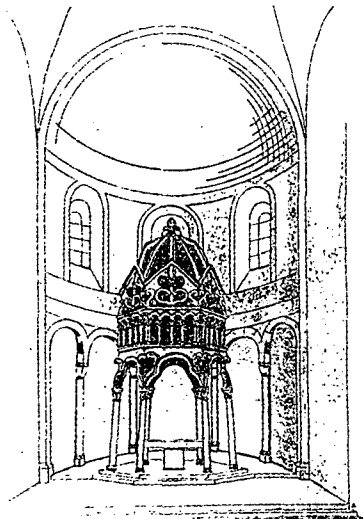
27)앞글, p.232.



〈사진15〉 "베를린 호텔" 구상 스케치.

웅어스는 '베를린 호텔'의 설계안에서 기하학적 요소들을 조합하여 공간의 변형형태를 유기적으로 발전시켜 'Haus im Haus'의 유형학적 특성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의 유형학적 전개가, 통합적 전체공간을 형성하는 데에 얼마나 적합하고 명료한 방식이 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이다. 웅어스의 건축설계에서 'Haus im Haus'이라는 이념을 유형학적으로 추상화시키는 형태학적 수단으로 선택된 정방형의 의미를 파악해 보면, 그것이 곧 'Haus im Haus'의 유형학적 의미와 특징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하학적 정방형은 그 추상성으로 인해 유일하고 초월적 성격을 띤 절대성을 지닌다. 이러한 절대성은 시간을 초월해 영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또한 주변세계의 다른 형태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석의 의존성을 벗어나 독립적 의미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Haus im Haus'의 모델, 타입으로서의 유형학적 성격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정방형은 곧 시초로의 귀환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비유다.²⁸⁾ 명료하고 제한성을 가진 형태로서 오히려 자연의 모든 비유적 재현을 가능하게 하는 "원형"으로서의 유형학적 공간을 구성해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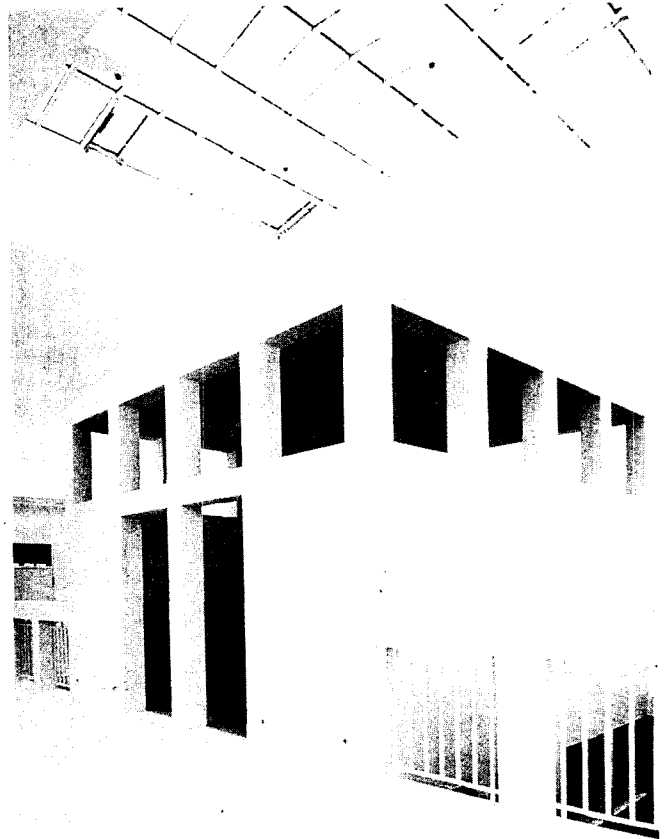
〈사진16〉 "성당 속의 성당" 마리아 라이흐 성당의 제단 천개. 웅어스, 1947. 육각형의 공간 내에 솟은 작은 육각형의 탑, 원추형의 지붕형태가 공간의 독립성을 강조한다.

28) 앞글, p. 23.

3-4. 변증법적원칙으로서의 "Haus im Haus"

헤겔은 인간의 사유가 定.反.합.의 변증법적 발전형식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한다. 어느 한쪽에서 야기된 상태는 반대편의 상태로 이행함으로써 양극적 대립이 균형을 이루게 됨으로써 양극의 요소가 보존되면서도, 분화되어 대립되어 있던 이전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상태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서 변증법은 단지 논리적인 관점에서 사유형식으로만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사유의 자기운동과 실재의 자기운동이라는 두 측면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과정임을 명시하고 있다.²⁹⁾

건축학적 형상화는 우연한 착상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개별적 경우마다 그 자체로 정확한 형상논리학에 의해 규정된다.³⁰⁾ 영국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화이트헤드(A. N. Whitehead)에 의하면 현실을 묘사하는 데에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실체와 본질을 탐구하여 이것을 성질로 치장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과정, 기능 및 또는 관계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다. 직관의 이 두 대립되는 방식은 정적, 원자론적, 실체중심적 직관방식 및 동적, 전체론적, 관계중심적, 과정 직관방식으로 묘사될 수 있다. 전자는 실체와 그 속성, 논리적 질서와 범주화의 체계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후자는 과정, 변화, 상호작용 및 변증법적 관계에 비중을 둔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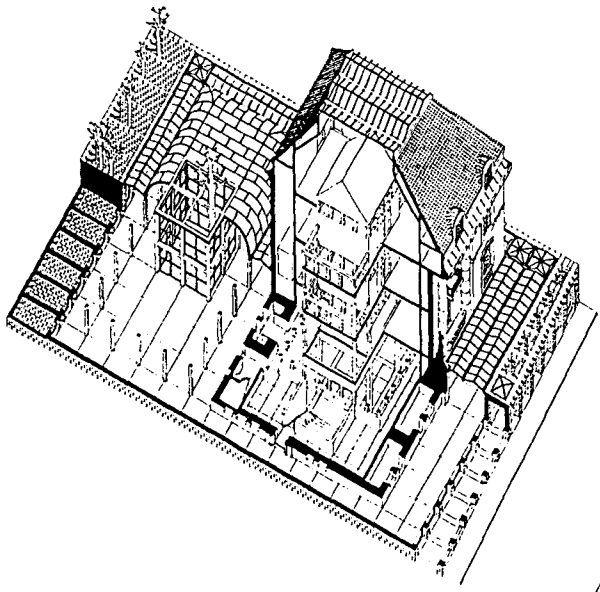
〈사진17〉 집 속의 집(Haus im Haus)

'Haus im Haus' 즉 내부이면서 외부의 의미를 지닌 공간관계와 형태적 특성은, '상이하면서 동일하다'는 사실이 통일성 또는 전체성을 이루는 변증법적 관계의 요소들에 귀속된다. '상이하면서 동일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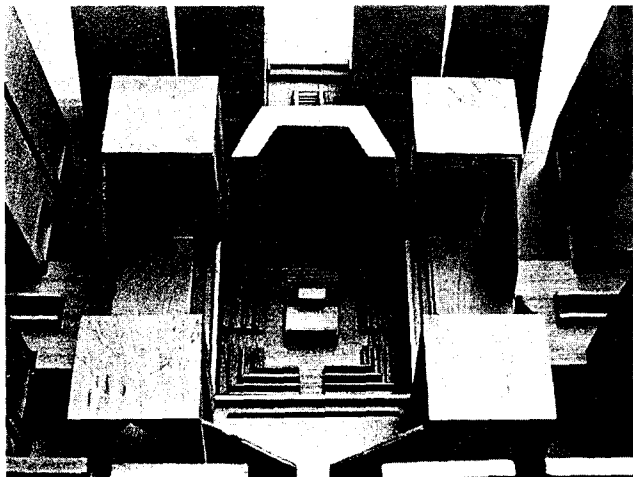
29) Hans Joachim Störig, 임 석진 역(1981), 세계 철학사, 서울: 분도출판사, 1981, p.227.

30) Fritz Neumeyer(1994), p.232.

31) Joachim Israel, 황 태연 역(1983), 변증법, 서울: 도서출판 까치, p. 19.



〈사진18〉 프랑크푸르트 건축박물관.



〈사진19〉 루이스 칸, 후르바 시나고그(Hurva-Synagoge), 예루살렘 1968. "인형숙의 인형"

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순으로 기술된다. 그러나 '동일하다'가 'identisch mit'와 'identisch als'의 의미로 이해되면, 언어적 논리의 모순점이 해결된다. 'etwas mit etwas identifizieren(무엇을 무엇과 동일시 하다)'와 'etwas als etwas identifizieren(무엇이 무엇임을 알게하다)'라는 언어적 용법이 변증법적 관계의 모든 속성들이 지닌 하나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 두 표현은 상호관계 속에 들어 있고 따라서 하나의 전체성을 형성한다. 이 표현들은 상호 의존적이고 어떤점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고 동시에 각기 상이하고, 상호보충적 양태에 있어서는 상호 반대의 위치에 있다.

변증법적 관계란 요소들이 상호의존적이고 동시에 이 의존성이 대립성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다. 변증법적관계에서 요소들은,

1. 하나의 전체를 형성한다.
2. 이들은 각기 상이하다.
3. 이들은 상호의존적이다.
4. 그러나 이 상호의존성은 자의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즉 한요소가 다른 모든 요소에 의존적이지 않다. 의존성은 한요소의

32) 앞글, pp. 182-189.

한정적 다른 요소에 대해서만 타당하다. 이것은 다시 두요소가 어떤 것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는데, 즉 상호동일시될수 있다는데 기초한다. 일정한 조건하에서 비동일성은 모든 대립적 측면에서 고유한 것이고, 따라서 이런 측면들은 대립이라고 지칭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 측면들 사이에는 동일성이 존재하고, 따라서 이 측면들은 상호 결합되어 있다. 대립을 비동일성과, 그리고 동일성을 상호 의존성과 조합할 수 있다. 비동일성을 동일성과 통합한다면, 대립과 상호의존성도 짝이 될 수 있다. 이 네 속성을 상대적으로 상호관계시키고 각 조합속에서 하나의 속성이 나타나도록 관련시키면 변증법적 복합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헤겔은 「철학백과사전 Enzyklop 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에서 "동일성은 오직 똑같은 것이 아닌, 즉 상호동일하지 않은 것들 사이의 동일성이고 - 비동일성은 비동일한 것들 사이의 관계이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은 상이한 측면이나 관점 속에서 서로 무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 하나는 다른 것 속으로의 照映이다 (eine ist ein Scheinen in die andern)".³²⁾ 변증법적 관계의 제요소는 대상으로서의 사물이 아닌 관계 그 자체이다. 즉 외적으로 상호관련된 것으로 파악하는 부분들을 그들의 본질(das, was sie sind)의 본질적 요소들로서 자기자신 속에 내포하고 있는 관계들로서 파악된다. 이러한 "관계들의 관계"에서 우리는 'Haus im Haus'가 지니는 개념형성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변증법적 관계체계로 이루어진 'Haus im Haus'의 구조는 상이하면서 상호 관련되어 있고 상호대립 속에 있지만 어떤 공통점을 지니는 두개의 요소로 합성되어 있는 하나의 전체 또는 통일체이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과정적 전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회적 전체는 전제된 요소의 집합이나 또다른 새로운 실체가 아니라 관계들의 체계인 까닭에 이 각 관계는 관계자체 뿐 아니라 관련된 각 부분의 변화를 산출한다."³³⁾

4. 결론

생태학에서 "외부"로 간주되는 것이 생태학과 해부학에서 "내부"로 파악되는 것을 보면, 결정적인 것은 대상자체가 아니라, 그 것을 파악하는 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³⁴⁾ 건축적 공간을 파악하려는 어떤 특정한 관점들은 건축형태의 변화에서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때 건축은 양극적 관점의 통합을 유도하는 매개체로 새롭게 정의되고, 또한 그 의미영역이 확장될 것이다.³⁵⁾ 이러한 성격을 포괄하는 중심개념으로 파악된 'Haus im Haus' 공간조형개념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Haus im Haus'의 구조는 그 자체가 공간의 연속성을 표현하는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건축을 테마화 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징미학적 특성의 의미는 건축을 특유의 표현수단을 필요로 하는 예술형태라는 인식을 통해, 건축에 있어서 실질적 기능성과 예술성의 통합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둘째, 'Haus im Haus'는 의도적인 공간분절에 의해, 다양한 의미변환이 가능한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공간관계의 유연성은 '공간의 사회성'이라는 각 공간의 상징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 'Haus im Haus'의 상호연관성을 지니면서도 독립적인 공간관계는, 인간의 의도에 따라 공간을 계열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33) 앞글, p. 208.

34) J. S. Rowe, Necdet Teymur(1982), Environmental Discourse, 1982, London: Question Press, p. 83. 재인용.

35) Heinrich Klotz(1994), p. 293.

세계, 건축은 자연과 비슷하게 움직인다. 건축은 자연처럼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³⁶⁾ 'Haus im Haus'로 조형된 공간은 자체의 공간체계 내에서 연속적인 변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연환경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내재, 'Haus im Haus'의 구조에 내재한 공간요소들의 관계성, 즉 상호의존적이고 동시에 이 의존성이 대립을 함축하고 있는 변증법적 특성은 건축적 복합체계 구성원리로 작용한다.

인간과 환경관계의 속성은 그 것들이 결합되는 방식의 다양성, 다중성과 일치하여 다양하고 다각적이다. 예를 들어 "인간과 그의 환경"이라고 할 때, 그 말에는 '인간이 환경을 소유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인간이 환경 속에 있다'는 이중적 의미가 포함된다. 인간과 환경관계의 근본적 다양성은 주체와 객체의 "이중의 이중성"에 의해 분석이 가능하다. 게오르크 짐멜은 그의 저서 『문화철학』에서 "주체의 객체화와 하나의 객체적인 것의 주체화를" 포함하는 것, 즉 "폐쇄된 단일성에서 출발하여, 다원성을 통과하여 활짝 전개된 단일성으로 가는 것"을 문화 진행과정의 특성으로 규정한다.³⁷⁾

위에서 기술한 'Haus im Haus'공간조형개념의 특성을 종합해 볼 때, 건축의 본질은 내부와 외부, 물체와 공간 등 제 요소들의 이중작용 속에 있다. 이러한 이중작용을 기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서의 'Haus im Haus'는 공간의 다원 가능성, 경계의 해체를 통한 통합적 공간을 구현하는 공간조형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Haus im Haus'의 공간개념이 적용된 공간구조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통합체적 성격을 띠며, 공간 구성방식의 연속성은 건축적 공간의 변형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그 자체 구조의 이중적 관계속에 있는 변수들에 기인한 다양함은 건축적 내부공간의 의미확장과, 그 형태의 발전적 전개를 가능하게 해준다.

참고문헌

1. Floch, J. M. 박인철 역(1994), 조형기호학, 서울:한길사.
2. Hawkes, Terence. 오원교 역(1982), 구조주의와 기호학, 서울:신아사.
3. Israel, Joachim. 황태연 역(1983), 변증법, 서울:도서출판 까치.
4. Heinrich Klotz, 양동양 편역(1994), 현대건축론, 서울:기문당.
5. Osborne, Harold. 서배식 역(1984), 미학과 예술론, 서울:대왕사.
6. Neumeyer, Fritz. 진경돈 외 공역(1994), Oswald M. Ungers의 건축이념과 작품론 1951-1990, 서울:미건사.
7. Störig, Hans Joachim. 임석진 역(1981), 세계 철학사, 서울:분도출판사.
8. Toussaint, Bernard. 윤학로 역(1987),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청하.
9. Zevi, Bruno. 강혁 편역(1989), 공간으로서의 건축, 서울:집문사.
10. Gruber, R. Sichtbeschränkungen. Zur Überwindung der kulturellen Orientierungskrise, in:G. Fischer u.a. (1987), 'Abschied von der Postmoderne. Beiträge zur Überwindung der Orientierungskrise, Wiesbaden.
11. Joedicke, Jürgen.(1985), Raum und Form in der Architektur, Stuttgart:Karl Kröner Verlag
12. Heinrich Klotz, City Wall and Adam's House, in:V. M. Lampugnani(Ed.) 1990, Museum Architecture in Frankfurt 1980-1990, Munich.
13. Kruft, H.-W.(1986), Geschichte der Architekturtheorie, München:Verlag C.H.Beck.
14. Lang, Jon(1987). Creating Architectural Theory,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
15. Meisenheimer, Wolfgang.(1990), Raumstrukturen, Düsseldorf: Fachhochschule,
16. Ortony, A.(1979), Mataphor and thought, Cambridge.
17. Pahl, Jürgen. (1986), Typus-Modell-Leitbild, FH.Düsseldorf.
18. Teymur, Necdet.(1982), Environmental Discourse, London: Question Press.

(접수 : 1996. 2. 24)

36)Fritz Neumeyer(1994), p. 233.

37)Fritz Neumeyer(1994), p. 23.